

*** 이 주간에 묵상할 말씀 ***

“아브넬이 부하 이십 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사무엘하 3 : 20,21

* 민경업 목사 방송 설교 : AM 1190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우리의 감사

- **십일조** : 강그레이스 강순희/강정희 김기자 김옥인 김줄리아나 류경진/마리아 문승용/은주 민경업/미숙 박민철/김경숙 박형근/최영외 백승우/경화 송황외/미서 신동국/소피아 신영구 오제임스 우대옥 우종복/정은 유병호/혜진 이명원/정균 이민중/수남 이재문/김지수 임창열/내숙 정문수/명옥 정엔젤라 최경호/사라 최유성 한홍철/혜정
- **감사헌금** : 김영국/연권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임 (늘 함께 주 예수님과 하기를 도와주세요) 김옥인 김일수/희식 (범사에 감사) 김정훈 (소원예물: 내 평생 주일성수 할 수 있고 십일조를 드리며 봉사하게 하소서) 양은영/정자 이비비안 이선채 이재문/김지수 (늘 함께 하심 감사) 전애덕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최유성
- **주일헌금** : 김성수/유순덕 김수영 김옥인 김완섭/향영 김일수/희식 류경진/마리아 류성민 배준한/광자 신동심 양기수 이범식/영순 임막동/정숙 정영숙 조종현/미셀 최우준/수정 최유성 표미희 무명13명
- **창립감사헌금** : 최유성
- **건축헌금** : 송영찬/영진/영수
- **선교헌금** : 서상연/지연
- **선교지정헌금** : 박민철/김경숙 (은혜였습니다) 전애덕 정문수/명옥

- 별도의 헌금 시간은 없습니다. 교회당에 오셔서 직접 헌금하시거나, 교회 주소로 헌금을 보내주시고, 헌금자 명단에 빠진 분은 연락해주시시오.
- 115헌금은 한(1) 가정이 한(1) 주에 \$5이며, 모기지 헌금과 함께 건축헌금에 포함됩니다.

헌금 총계 : \$9,938.00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빌4:18).

□예배 도우미

		8/14	8/21	8/28	9/4
대표기도	주일 1	강순희	백승우	민병수	박내원
	주일 2	강순희	백승우	민병수	박내원
토	8/13유순덕	8/20강순희	8/27김신희	9/3김줄리아나	
1부간식봉사	포도원(명성천)	권사회	사랑(박내원)	은혜(신동심)	
2부점심봉사	포도원(명성천)	권사회	사랑(박내원)	은혜(신동심)	
안내위원	이명원 이민중 임창열 임내숙 박내원 박소정				
헌금위원	백승우 이민중 박소정				

1. 한국과 미국을 축복하시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어서 속히 남북평화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2. 우크라이나, 아이티,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각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3. 우리교회가 후원하는 브라질의 이영대, 이에심 선교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소서.
4. 창립 2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교회가 나이만큼 성장, 성숙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소서.
5.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소서.
6. 담임목사님과 당회의 장로님들(우종복, 강순희, 백승우)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를 잘 이끌게 하소서.
7.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하여 강단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소서.
8. **요일별로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우들	월	이영순 성병연 박혜용	화	전순혜 나중원 이민중
수	김병은 윤상월 김광례	목	양은영 김조앤 백덕임	금	김연권 최영자 서상연

<파송> 캄보디아/김창규 · 정영란(1가정)

<후원> 나미비아/임선희, 러시아/길요한 · 남지연, 김문일 · 성숙, 멕시코/전재철 · 순혜, 미얀마/이 동 · 수잔, 조현직 · 정윤희, 브라질/이영대 · 애심, 인도/김태래 · 초미성, 중국/이주열 · 지희, 한국(본부)/이주희 · 변희예(10가정)

<기관> 미국 컴미션(이재환)
북한 새터교회/강철호(한국) · 빛나라선교교회/이종환(미국)
중국 GBM(안경숙)
한국 이랑학교(정용갑)(5기관)

담임	민경업 목사	사무장로	우종복 장로
행정	류경진 목사		강순희 장로
교육부	신소피아 선교사	찬양팀 리더	백승우 장로
한국학교	정영숙 사모	반주	조종현 집사
			김신희 권사
			류마리아 사모

주일예배 : 1부 - 8시 / 2부 - 11시
토요새벽예배 : 6시 30분

- 교 육 부: 주일 오전 11시[108]
-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5시30분 [본당 & 라이브톡]
- 주일장로기도모임: 오전 10시[101]
- 나침반한국학교: 주일 오전 10시[102]
- 주일권사기도모임: 오전 10시[107]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 714-403-2193

주 일 예 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예배초청 I nvocation	민경업 목사
찬양과 경배 Praise and Adoration	내 영이 주를(기쁨148)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기쁨134) 부르신 곳에서(기쁨238)
찬양	사도신경
기도 Prayer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73)
찬양	강순희 장로
찬양	다같이 /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기쁨213)
찬양	1부/한마음 주소서 2부/에이레네-죽으면 죽으리라
말씀선포 Worship thru Proclamation	<리얼 크리스천 시리즈 (4) - 화평> “평안히 가게 한 사람” 사무엘하 3 : 20-39 (구약 p.467)
헌금 Worship thru Offering	주는 평화(기쁨516)
인사와 교제 Koinonia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찬송 Worship in Song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말씀묵상새벽기도회	토요새벽예배
월-금 /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
민경업 목사 본당	민경업 목사 본당

* 말씀묵상새벽기도회를 집에서 “라이브톡”으로 참여하기 원하시면 류경진 목사님에게 알려주시시오.

“공동체를 살리는 자”

어떤 신문 기사에 어떤 외국인이 이민 온 한인들을 보면서 느낀 점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무엇보다 경제력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한인들은 돈이 많고 집도 잘 사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열입니다. 한인 부모들은 학군이 좋다면 무조건 그리로 이사하며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열이 놀랍다고 했습니다. 하긴 이민 사회가 다 특징이 있지만 일본 사람들은 상사를 세우고, 중국인들은 식당을 차립니다. 한데 한국인은 몇 명 없어도 교회부터 세우는 놀라운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인들은 잘 싸우는 게 특징이라고 느꼈습니다. 싸우되 다른 민족과는 잘 싸우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시며 각자 다 다른 생각이시겠지만 저는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한인들이 잘 싸우는 이유에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환경적 원인도 있다고 진단합니다. 1961년 아프리카 가나(Ghana)의 국민총소득(GNI/Gross National Income)이 \$179일 때 한국은 고작 \$82였답니다. 그런데 가나는 2000년에 \$350인데 반하여 한국은 \$10,000라고 하고, 작년에는 \$35,000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국 사회 속에 있는 갈등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사회가 변화무쌍하고 그런 가운데 더욱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75,000을 넘었다고 하니 한국에서 태어나 가난에 쪼들었던 우리 민족이 이민 와서 서로 갈등하는 것은 더욱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수록 우리들에게는 서로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더욱 절실한 현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평강의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기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5:9). 오늘 세상은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서 아귀다툼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교회에도 평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평화의 왕을 모시고도 정작 평화는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화의 왕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민교회는 싸우지만 알아도 부흥한다” 는 부끄러운 말이 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교회는 싸우거나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싸우면 다 같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가 화평하려면 먼저, 각 개인의 가정이 평안해야 하고, 더 먼저는 각 개인의 마음에 참된 주님의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평화로 이끄는 자가 가정과 교회를 살립니다.[M]



“우리가 후원하는,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조현직, 정윤희 선교사님”

□ 지난 주 방문하신 분

- 최은주, 박명주 권사
- 이성욱 성도 가족
- 최문자 권사

□ 교회소식.....

1. 교회창립 24주년 기념사역 :

1) 감사예배 : 다음 주일(21일) 1, 2부 예배

- 특별 강사 : 심수영 목사 (아틀란타 새교회 원로목사, PCA 한인담당 총무)
-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창립감사헌금은 별도의 헌금봉투를 통해 내주십시오.

2) 특별새벽기도회 : 15-20일 / 월-금 5:30, 토 6:30

- 강사 : 민경업 목사
- 주제 :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일시	15일(월)	16일(화)	17일(수)	18일(목)	19일(금)	20일(토)
기도	우종복	백승우	민병수	박내원	이명원	강손희
찬양	순장부부	권사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당회원부부	에이레네 찬양대
성경봉독	문은주	신동심	김신희	김줄리아나	강정희	우정은
성경본문	창세기 8:1~12	창세기 8:13~22	창세기 9:1~17	창세기 9:18~29	창세기 10:1~32	창세기 11:1~9

우리교회 창립 24주년을 맞이하여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위하여, 또한 가을 사역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특별새벽기도회를 가지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집회에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3) 특별 교육 세미나 : 다음 주일(21일) 오후 1시

- 강사 : 유수연 사모 (ABC교육구 교육위원장)
- 주제 : “미국 교육의 현실과 우리의 자세”

2. 환영 : 서광권 목사님 가족과 탈북신학생들이 토요일새벽예배(13일)에 참석하십니다. 환영합니다.

3. 큐티 교재 : 생명의 삶 9월호 준비되었습니다.(\$5)

□ 교우동정.....

- 김광례 권사(척추수술)
- 소천 : 이병덕 권사(강대찬 장로 모친)

□ 미얀마에서 온 편지(지난 주 선교편지의 계속).....

며칠 전에 이곳의 한 중국음식점을 찾아서 같이 사역하는 ACMI의 동료들과 회식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먹던 수이주러우피알, 양조우차오판, 꾸바오지딩, 진인만터우(하하하).. 등을 소개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덥고, 습하고, 불편하고, 불안한 이곳의 삶이지만 잠시나마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제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불편함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성도의 견인(인내하는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살아내는 도전하는 삶을 같이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아내의 활동> 유빌라테 학원에서 그간 다른 음악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여러 곳에서 음악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의 실력이 모자라서 이들을 재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그들만을 따로 모아서 음악 고급교육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영어와 미얀마어를 섞어서 힘들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ACMI 상황> 이번 학기에는 지난 학기에 ICT(컴퓨터/인터넷)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대 교수님들이 만들어놓았던 과목들을 도움 받아서 같이 보면서 설명하는 형식이지만, 저도 창업에 대해 배우고 학생들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를 맛보고 있습니다.

토요일새벽예배

13일 / 오전 6시 30분

예배초청 / 웨키나 찬양팀

찬양과 경배 /

내 영이 주를(기쁨148)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기쁨134)

교독문 30번 / 시편 67편

찬양 / 주여 우리 무리를 (75)

기도 / 유순덕 권사

찬양 / 탈북신학생 특별찬송

성경봉독 / 창세기 7:1-24

말씀 / 민경업 목사

“의인만이 살아 남는다!”

찬양 / 보혈을 지나(기쁨236)

인사와 교제 / 다같이

찬양 / 어둔 죄악 길에서 (523)

□ 미얀마에서 온 편지(계속).....

그간 출장을 하던 ACMI와 좀 더 많은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미얀마의 한국인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의 사역이 목사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한 센터사역(유치원/방과후 학교+교회)이 각개전으로 펼쳐져있는데, 교육선교기관을 잘 형성해서 동역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ACMI가 그런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학은 2년제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하던 칼리지인데, 다음 학기에는 한국어강의를 전문으로 듣게 되는 한국어 전공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한국어 학원을 시작하시려던 선교사님을 영입해서 하나의 학교를 키워나가는 데에 동의하셔서 힘이 조금씩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은 빌려서 쓰고 있는 형편이라, 내년 4월에 다시 새로운 장소를 구하게 될지, 현재의 계약을 연장을 받든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 기관을 좋은 선교교육기관으로 확장하는 플랜에 동의해서 같이 회의하면서 돕고 있습니다. 또 교장선생님 가정(장성우)과 매주일 오후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공동체를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되는대로 현지인 교사나 학생을 초대하는 가정교회 모임으로 발전해 나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보에 계속)

2022년 7월 조현직, 정윤희 선교사 올림

주일(14)	월(15)	화(16)	수(17)	목(18)	금(19)	토(20)
렘40-42	렘43-45	렘46-48	렘49-50	렘51-52	애 1-2	애 3-5